

현대건축 현상의 존재론적 해석

- 20세기말 아방가르드를 중심으로 -

변 계 성

(창원전문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주제어 : 현대건축, 존재론, 현상, 해석, 아방가르드

1. 서론

건축물이 기능적인 도구나 기술적으로 구축된 구조물로서만 간주된다면 건축문화에 대한 논의 자체는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건축은 한 시대의 문화적 총체로서 인식되어져 왔으며 언어화되지 않는 건축행위나 결과물로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이나 해석을 하는 것은 언어체계가 소화하기 힘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도되어 오고 있다. 이는 건축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간과하기 힘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용도폐기되는 도구적 존재로서만 건축물을 보기에는 건축물이 인류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가볍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건축에서 문화적 논의는 필연적으로 철학적 문제와 연관되어지는데 이는 인간의 존재가 하이데거의 언급처럼 세계-내-존재이므로 인간의 건축행위는 세계-내-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세계-내-행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회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사유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건축은 건축이론의 정립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사유체계를 참조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건축에서의 기호학(Semiotics)이나, 해체주의건축에서 보이는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적 접근 방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건축에 있어서 해체논의

이후에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건축 시도들을 살펴보면, 현상적으로 건축가 각각의 개성적 접근 방식과 일정한 분류를 거부하는 건축형태로 인하여 단지 자의적 접근이나 일시적 경향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배경에는 복잡화 되고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 나아가 예술로서의 건축이 그 표현에 있어서 가지는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사유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이후 발표된 건축 작품들 중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건축적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건축적 방법론과 형태적 표현양상을 나름대로 추출하고, 이것들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존재론¹⁾적 사유의 서양철학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들뢰즈(Deleuze)의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메타언어적 관점에서 존재론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적 흐름들을 조망하는 심층적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1) 여기서의 존재론은 서양철학에서 전통적으로 구분해 온 일반형이상학과 특수형이상학의 구분 중 일반 형이상학으로서의 존재론을 지칭한다. 특수형이상학은 신론, 영혼론, 우주론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신, 인간, 세계에 대한 탐구이다. 반면 일반 형이상학은 존재자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탐구하는 존재론(Ontology)을 말한다.

2. 존재론

논지(論旨)를 존재론적 사유의 서양철학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들뢰즈(Deleuze)의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20세기말 아방가르드 건축 현상(現象)의 존재론적 해석으로 전제하였으므로 서양철학사에서 존재론적 사유의 전개과정과 현대철학에 있어서 들뢰즈의 존재론적 사유체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다소 지루하고 지난(至難)한 작업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

2-1. 서양철학에서 존재론적 사유의 전개

존재론(ontology)은 형이상학의 한 분야로 자연 법칙이나 실재를 포함한 모든 존재(being)들을 다룬다. 존재론은 종종 인식론(epistemology)과 혼동을 일으키는데 인식론은 지식(knowledge)과 안다는 것(knowing)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것으로 존재에 대해 다루는 존재론과는 구별된다. 즉, 존재론은 모든 존재자들과 존재에 대한 사유체계라고 볼 수 있다.

서양철학사에서 존재에 대한 원시적 물음을 최초로 던졌던 사람은 파르메니데스(Parmenides)로 그는 모든 존재자들의 공통적 특성으로 '불변(不變)'을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스는 생성과 변화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감각보다 이성을 신뢰, 논리와 사유의 대상에 최초로 눈을 돌린 철학자이다. 그는 그의 책 '자연에 관하여'에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면 모순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은 불생, 불멸이다. 생성된다면, 존재하는 것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해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생성할 수가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불변적이며, 존재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밖에 없다.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누든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야 한다. 존재하는 것으로 나누면 존재하는 것의 연속이므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것은 곧 나누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존재는 나누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존재와 무(無)만이 있을 뿐이다.

플라톤(Platon)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을 일부 계승하여 존재를 참다운 존재일 수 있게 하는 자 존적이고 완전한 존재로서의 어떤 것을 이데아(idea)라 상정하여 참된 것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감각적인 실재의 사물들은 모두 이 이데아를 본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는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사물과 세계를 '그것이게끔 하는 것', 즉 '존재하게끔 하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이데아를 통해서 다른 존재들이 존재를 갖게 된다, 즉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존재자들은 이데아의 모방이자 재현이며 이에 입각하여 존재하고, 두 세계 사이에는 실물과 그림자, 실물과 모상(模像)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존재론에 있어서 '이데아'는 '감각적 존재'에 선행하는 '본질'로서의 '절대적 존재'를 의미하고 그의 이러한 사상은 서양철학에 있어서 존재론적 이원론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존재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변화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기저에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기체(hypokeimenon; substratum)라고 부른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각각 실체의 측면(생성, 소멸), 질의 측면(변질), 양의 측면(증가, 감소), 장소의 측면(운동) 등이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기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상과 질료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실체를 질료와 형상으로 나누고 생성과 소멸의 경우에 있어서 질료가 그 기체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소나무 기둥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형상을 가진 것이나,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질료이다. 따라서 모든 변화의 근원으로서 불변하면서도 모든 존재들에 대한 질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궁극적인 질료가 요구되는데 이를 '제1질료'라고 부르며 우주를 포함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부동의 원동자로서 신(神)을 상정한다. 그에게 신(神)은 실제로 존재하면서 불변하는 최고의 존재이다.

칸트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형적 의식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진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존재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는 결국 우리의 관념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궁극적 질료는 인간의 인식 밖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관이 객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이 주관을 따른다는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한다.

예를 들면 공간, 시간은 우리의 감각에 주어지는 모든 사물들 간의 관계에서는 객관적인 질서들이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에게 감지되는 사물의 실제적인 규범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감각될 수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관념적인 존재로 판단한다. 또한, 그는 인간의 인식밖에 있는 객관적 실재를 인정하면서 이를 '물자체(Das an sich)'로 지칭한다.

2-2. 하이데거의 존재론

하이데거는(Heidegger)는 이제까지 철학은 단지 존재자들 특히, 그 본질에 대해서만 사유를 진행하였을 뿐이며 그 근원이 되는 존재에는 사유가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존재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존재범주'와 '실존범주'를 도입하여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한다. 즉, '존재'는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자가 되는 근거이며, '본질'과 '속성'과도 구분되면서 오히려 속성과 본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사유하는 인간 존재자를 '현존재(Dasein)'²⁾라고 명명하고 이 현존재는 자신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므로 이러한 현존재(Dasein)의 존재를 특별히 '실존(Existenz)'이라고 부른다.

현존재는 매 상황마다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데 스스로의 존재를 결단하는 존재는 '본래적 존재'로서 '현상적 존재'나 '도구적 존재'와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본래적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현존재가 관계 맺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계'는 인

식에 선행하는 관계로서의 세계이며 현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상황을 '세계 내 존재'로 상정하며 따라서 현존재의 존재가능과 관련하여서 세계는 의미를 가지며, 세계관은 그때마다의 현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훗설(Husserl)의 생활세계적 현상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생활세계'는 논리적, 술어적 세계에 앞서는 '선술어적' 의미이다. 즉, 칸트에서의 '질료'가 주관에 의해서 마음대로 구성 가능한 소재인데 반해서 훗설에서의 '질료'는 주관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없는 자체적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훗설에게 있어서 진리의 인식은 미리 세계가 가지고 있는 바, 주어진 바를 밝힌다는 의미를 지니며, 대상을 표상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함이나 의미를 밝힘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진리 드러내기'가 은폐된 것을 비은폐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하이데거에서는 이러한 참다운 존재의 드러남과 관련한 그의 논문인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사물존재로서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소박하게 파악된 존재자로서의 도구가 그 도구의 존재이해를 이끌어내는 현존재의 기획투사³⁾에 의하여 존재의 비은폐성안으로 현출함을 설명하고 있다. 즉, 도구가 자기를 내보임에 있어서 자기의 도구존재를 함께 내보이는 일은 예술작품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예술작품 존재의 이해방식은 분석의 출발을 현상학적 방법에 돌 수밖에 없는데 예술작품이 자신의 존재를 내보이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는 현존재의 기획투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은닉된 채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존재를 내보이지 않을 수 있는 예술작품 존재자의 사물존재로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존재자에 집중된 시선을 존재자의 존재의 이해로 환원시켜 예술작품 존재 또는 사물존재를 드러나

2) '거기에 있음'을 의미하는 'Dasein'을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는 인간존재자의 특수한 존재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즉, 그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미를 묻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결정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3) 사물 또는 다른 존재들에 대한 관심(배려)을 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자신의 존재를 내던진다. 그 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앞을 향해 던지는 것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또는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또는 기도(企圖)이다. 이를 하이데거는 '피 투기적 투기' 또는 '기획투사'로 표현한다.

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환원적 기제에서는 사물존재의 사물성에 대한 우리의 왜곡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현상학적 환원⁴⁾을 통하여 사물존재자가 사물존재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우리 생활세계의 한 범주로 머무르지 않고 현존재의 존재론적 행위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2-3. 스피노자에 있어서의 존재론적 사유

스피노자에 있어서 모든 존재는 신으로 표현되는 자연에 기반 하여 필연적으로 속성이나 양태를 정립하는 것으로 되어 진다. 즉, 모든 존재나 사건들은 자연에 기반 하여 인과론적으로 결정되어 진다. 우주의 생성도 근원은 자연이다. 따라서 공간 및 시간적으로 무수히 많은 형상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그 기저에는 자연이 있으며, 세계는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다양한 모습들로 전개되어 나아간다. 따라서 현재는 완전히 독립한 채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존재에 과거 역사가 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가 현재하지 않으므로 과거는 없다는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된다.

한편, 스피노자의 사유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 사건은 원동력에 대한 강조이다. 스피노자에게 자연과의 관계와 인간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한히 열려 있고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우주와 살아 있는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생성의 힘이다.

2-4. 베르그송에 있어서의 존재론적 사유

인식론적으로 사유하던 학문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유클리드 기하학과 달리 결합에서 각기 다른

4) 훗설에게 의식과 의식대상간의 관계는 의식이 대상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관계를 갖는 형성작용(noesis)과 형성체(noema)의 상관관계로 사유된다. 따라서 그에게 현상학적 환원은 실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주어진 순수의식의 직관적 파악을 위한 '판단중지'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실재, 세계는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적 순수의식'과 관련된 의미통일체로서 파악되어 결과적으로 개별성은 배제된다. 반면에 하이데거가 주장하고 있는 현상학적 환원은 존재자 자체와 존재자의 행위존재까지도 포함하여 사유되어야함으로 존재자가 체현하는 그때마다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의미한다.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환원에 대해서는 Martin Heidegger, *Die Grundprobleme der Phanomenologie*, (Frankfurt a.M. 1975), 이기상 옮김, '현상학의 근본문제들', 문예출판사, 1994를 참조할 것.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차이를 가진 무수히 많은 형상과 속성들이 산출될 수 있다는 위상학적 사유방식이 등장한 19세기말에 베르그송은 심리학과 생물학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형이상학을 정립하면서 등장한다.

즉, 베르그송은 서양철학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인간의 지성이 자연을 초월한다는 이성중심주의 사상을 비판한다. 또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플라톤 이후의 서양사상사에 있어서의 원형동일성내지 자기동일성의 원리를 전복시킨다.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존재자들이 서로 관련을 맺는 방식은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조직하는 것이며 생성시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사유방식은 유기적 생명체와 같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면서 지속을 유지하고 있는 우주를 기본으로 하는 자율적으로 시간에 따라 흐르는 철학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 삶에 대한 존재론적 긍정이며, 자율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이 관계를 생성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생명의 운동을 강조한 사유⁵⁾이다. 따라서 인간존재의 세계(우주)속에서의 삶은 차이를 가진 창조적 생성과 이에 따른 희열이 가득 찬 희망적인 것으로 된다.

2-5. 들뢰즈의 존재론적 사유체계

2-5-1. 니체의 재해석

우리는 사회 및 타자와의 관련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존재론적 사유들의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즉, 각각의 존재는 '세계 속의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체계의 유지는 서양철학사 및 종교사, 정치사 전반에 걸쳐서 주요한 주제였으며 법률, 계약, 제도들이 체제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코드화의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더 이상 객관적 코드화의 수단들에 전적으로 순응하지 않는다. 사회는 비정규화 하고 탈코드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5) 플라톤의 존재론적 사유가 그 핵심을 부동의 영원한 본질적 차원으로서의 이데아를 상정하고 생성보다는 존재에, 시간보다는 영원에, 운동성보다는 부동성에 높은 존재의 우위를 두는 정적 형이상학이라면 베르그송의 존재론적 사유는 타자와의 끊임없는 관계 맺음과 운동 속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존재 및 삶의 방식을 조직화하고 생성하는 생명의 자발적 운동성을 강조하는 역동적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기표와 기의의 구조로 세계를 설명하고자 시도했던 기호학적 접근도 더 이상 이러한 비정규화와 탈코드화 되어가는 사회를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들뢰즈는 혼돈스럽고 비판적이며 허무주의로 흐르기 쉬운 이러한 상황에서 니체의 텍스트를 재해석함으로써 삶의 긍정적 힘을 찾아내고자 시도한다. 즉, 들뢰즈에게 있어서 니체의 애매모호하게 비쳐지는 텍스트는 어떤 확정적인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니체의 텍스트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고유명사들조차도 직접적인 지시대상을 가지지 않는 은유적 존재다.

텍스트의 해석은 전적으로 텍스트를 둘러싼 상황에 의존한다. 텍스트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그 텍스트를 통과하는 외부적인 힘들에 의해서 의미는 생산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주는 힘에 의하여 텍스트는 결정된다.⁶⁾ 따라서 텍스트는 새로운 의미를 주는 힘들에게 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면서 외부적 힘들이 격돌하는 하나의 장(場)⁷⁾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텍스트에 의미를 주는 외부적 힘들은 강도의 차이를 가지고 텍스트의 의미가 유출될 계열들의 혼재 속에서 접속과 전송의 지점을 산출하게 되고 이러한 접속점은 특이성(singularity)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들뢰즈에게 있어서 의미는 말의 사후효과이고, 하나의 사건이면서 말이 가능한 선험적 근거가 된다.

즉, 의미는 명제⁸⁾에 있어서 표현된 것이 된다. 또한, 의미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체들에 의해서 계열화⁹⁾의 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힘들이 격돌하는 특이성들의 장(場)은 의미와 사건들의 장(場)이 된다.

이러한 들뢰즈에 의한 니체의 재해석이 예술과

관련을 가지는 접속점에서는 오랜 예술미학에 있어서 논점이었던 플라톤류의 '모방과 재현'의 예술론을 대체한다. 예술은 더 이상 이상형, 원형을 모사(模寫)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면서 예술작품 스스로 작동하는 감각존재¹⁰⁾로서 존재한다.

들뢰즈 스스로도 가타리와 함께 서술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의 특수성은 잠재적인 것을 현실화한다기 보다는 그것에 실체를 부여하여 잠재태를 감각적 실체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¹¹⁾

이러한 들뢰즈의 니체 재해석이 의도하는 것은 능동적 삶의 긍정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혼돈된 상황 속에서의 허무와 무기력한 분위기에 대한 반전은 역설적으로 혼돈과 무의미의 거부가 아니라, 혼돈과 무의미는 부정하거나 두려워 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생성과 생산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고 무의미는 역설적으로 의미를 드러나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주의 생명력을 인정하고 세계와의 필연적 연관 속에서 실재의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각각의 사건이 서로 연관을 맺으며 다시 차이를 가지는 사건의 반복적 생산에 참여하는 생성중인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5-2.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그리고 노마드

한편 들뢰즈의 사유체계는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라이프니츠에게 모든 결정은 선행하는 이유에 의해 확실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다. 단자내지 개체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내재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자동장치이자 운명적 존재이다. 따라서 각 개체들은 외부적 촉발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유하게 결정된 자신의 본성에 따른 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6) "Nomad Thought", in *The New Nietzsche: Contemporary Styles of Interpretation*, ed. & intro. by David B. Alison, MIT Press, 1985, pp.142-149. 참조할 것.

7) 들뢰즈는 이를 '선험적 장'이라고 부른다. 여기서의 '선험적'은 전개체적인 장을 의미하며 의미의 주체도 기호도 사물도 아니면서, 물리적 존재도 정신적 존재도 아닌 중성적인 것이다.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1999, p.228 참조).

8) 이때의 명제는 진위의 판단이나 주체나 대상의 구별에서 자유로운 어떠한 논증이나 개념에도 구속되지 않는 명제를 의미한다. (Gille Deleuze,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1999, p.75 참조.)

9) 들뢰즈에게 있어서 '계열화'란 명제의 의미가 구체적 사건의 실체나 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맥락과 연관되어진다는 의미이다.

10) 들뢰즈에게 있어서 '감각'은 메를로 폰티(Merleau-Ponty)류의 감각론적 지각작용(perception)이나 정서(affect)와도 구별되는 전개체적이고 익명적이면서 주체의 이분적인 신체를 넘어서는 거대한 우주, 세계와의 연관을 경험하도록 공명(resonance)하는 '스스로 작동하는 존재'로서 초월적 의미를 지닌다.

11) Gille Deleuze,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 윤정임 옮김, 현대미술사, 1995, p.256 참조.

전개시키는 존재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수행하는 한에 있어서 만큼만 자유로운 것이 된다. 이러한 단자내지 개체를 라이프니츠는 모나드(monad)¹²⁾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프니츠에게 인간의 행위는 절대적 필연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은 결정론적 우주에서 그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좌표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행위를 전개시키는 존재이다. 즉, 모든 사물의 존재가 시간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한 산출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과거에 의해 인과적으로 조건 지워져 있어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결정론적 상황 내지는 자연의 인과관계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있다. 그가 제시하는 우주의 인과적 필연성을 자유로 전환하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 행위의 적절한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본성에 의한 필연성을 수용하고 이에 순응하여 행동할 때 가능하다.

즉, 자연의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지성의 힘으로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구별, 의식내지는 인식에 대한 집착, 존재의미에 대한 과장 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모든 삶의 진행에 있어서 원인과 근원은 자기가 되는 것이다.

한편, 들뢰즈에게서도 라이프니츠의 모나드가 완결된 존재이므로 새로운 생성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것처럼 사유되어 진다. 모나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동력적이지 않으며, 자기 충족적이고 정착하는 개념이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규정적이다. 규정적이라는 것은 스피노자와 들뢰즈에게는 부정적인 개념이다. 우주는 결코 규정적이지 않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규정될 수 없

는 것이다.

여기서 들뢰즈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인간 중심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긍정하고 자신이 가지는 본성의 한계를 인정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합한 관념을 가지기 위하여 사고능력의 증대와 끊임없는 자기 형성의 지속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은 필연적으로 자기 확장과 자기 보존(conatus)의 욕망을 수반하는데 각 양태들의 욕망의 부딪힘으로 인하여 세계는 운동과 변화가 충만한 역동적 상황이 된다. 이러한 역동적 세계는 그대로 중심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자 물체적이든 비물체적이든 힘(forces)들이 격돌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에서 적합한 관념을 가지기 위한 사유는 유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데 이는 주체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러한 주체성의 포기는 막연한 포기가 아니라 내재적 국면으로 정의되는 '초월론적 장', 즉, 시작도 끝도 없는 운동으로서의 무한한 생성과 객관이나 자아(주관)가 없이 객관에 의존하거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즉자적인 절대적 내재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실천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서의 가치평가나 실험 또는 가치의 창조, 생명의 근원적 원리로서의 감각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삶을 창조하고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적으로도 순차적 시간을 넘어서서 과거와 미래의 양방향으로 생성하는 영원의 시간(Aion)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아이온의 시간에 있어서 초월론적 내재의 場¹³⁾이 들뢰즈가 의도하는 생성의 영역이자 유목적 사유(Nomad Thought)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2-5-3. 차이의 철학과 시뮬라크르

들뢰즈 사유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건'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의 사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열화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계열화란 하나의 사실이나 실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기체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열화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됨, 또는 생성)에서 이해

12) 모나드(monad): 이 용어는 피타고라스학파에서 유래하며, 그리스어로는 monados가 된다. 이는 단위 또는 통일체를 뜻하는데 이데아(idea)를 지칭하기 위하여 플라톤이 사용한 이래 라이프니츠에 의하여 재사용 되었다. 라이프니츠에서의 모나드는 사물의 요소를 지칭하는데(단자론) '복합물속에 들어 있는 부분 없는 단순한 실체를 가리킨다. 동시에 모나드는 전 우주를 포함하며 자신들의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적으로 모나드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것들과 차이(difference)를 가지는 유일한(unique)것이다.

13) 들뢰즈는 이러한 구도를 내재의 국면(plane of immanence)으로 표현한다. (Gille Deleuze, Pure Immanence: Essays on life, trans. by Anne Boyman, Zone Books, New York, 2001. 참조.)

되어야 하는데 즉, 어떤 특이성(singularity)들의 집합은 하나의 계열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의 사실에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러한 계열 내에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된 사실로서의 사건은 이미 그 표현에 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며, 사건은 각기 다른 계열들에 의하여 계열 내에서의 의미로 생성된 것이다. 여기서 계열은 특이성들의 장이며 하나의 계열은 다른 계열과 연결해 있는 지점까지 확장되어 나간다. 이러한 이행은 결국 다른 계열 간에서 양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특이점 내지는 경계선에 다다르며, 이 특이점은 사실내지는 실체 자체로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채 표면적 상태(표면효과)의 변화를 초래하는 지점이다.

즉, 동일한 하나의 사실이 계열화를 통하여 각기 다른 사건이 되며, 이로 인하여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이한 의미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는 결정되어 있는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고 생성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의미들의 차이는 동일성을 갖지 않는 차이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차이란 궁극적으로 하나의 비정형적이고 단일한 잠재적 영역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은 잠재적으로 접어두었던(folding) 차이를 펼침(unfolding)으로써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실화의 결과는 어떤 것보다 유사하지 않고 모델이 없는 창조적인 것이다. 들뢰즈에게는 이러한 잠재태로부터 현실태로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강도 또는 차이를 포함한 사건자체가 '시뮬라크르(simulacre)'¹⁵⁾다.

이러한 들뢰즈의 사유는 기호론적 장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기표와 기의 및 의미작

용의 도입에 의한 소쉬르의 기호체계를 표현-내용이라는 구도로 대체한다.

내용의 차원과 표현의 차원은 상호간에 변환 가능한 개념이며 분배적인 개념이다. 즉, 내용 안에서 상대적 표현이 구성될 수도 있으며, 표현 안에서 상대적 내용이 구성될 수도 있다. 내용-표현의 구도¹⁶⁾는 상호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구조주의에 있어서 기표중심주의의 극복과 언어의 탈코드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구도는 어떤 것을 계열로 끌어들이 자기화하는 '영토화'와 거기서 벗어나는 '탈영토화'를 의도하는데 영토화와 탈영토화는 항상 선택적이고 유동적이므로 계열화하는 한에서만 규정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場에서 그의 유목적 사유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2-5-4. 시뮬라크르의 해방과 리즘적 사유

비정형적이고 단일한 공통감각의 영역내지는 내재적 구도에서 접혀져 있던 '차이'의 펼침은 하나의 강도로서 시뮬라크르로 나타난다는 것은 2-5-3에서 언급하였다. 이때의 시뮬라크르는 어떠한 모델이나 재현의 목적도 가지지 않는 순수한 생성이다. 이러한 시뮬라크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차이, 질적인 차이는 펼쳐지는 순간부터 고유의 성격을 가지며 개체적 사건의 위치에 있게 된다.

우연적 펼쳐짐과 펼쳐짐 이후의 개체적 사건의 필연성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내재적 차이의 펼쳐짐은 그 자체로서 차이를 내포한 사건의 생성이기 때문이다. 동일성의 정도나 원형은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러한 사건의 생성은 어떤 계통적 분류나 이해, 논리적 해석 등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기계와 비슷하다. 신경시스템에 있어서 신경세포간의 접속은 한 방향으로만 향하지 않는다. 동시에 다중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감각은 감각주체에 대해서도 감각대상에 대해서도 동시에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분열적이다. 공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열화의 새로운 배치와 변환들이 일어나는 혼돈스러운 세계(chaosmos)의 장에서 생

14)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자살, 살인, 호상(好喪), 안락사(安樂死) 등으로 표현되는 각 맥락에 따라 상이한 특이성의 계열들내에서 상이한 의미들을 생산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각각의 규정된 의미나 동일성을 표현한다기 보다는 차이를 포함하는 반복된 사건을 뜻한다. 즉, '자살'은 수 없이 반복되어 온 사건이었고, 각 사건들은 차이가 있는 개별적 사건임에도 동일한 특이점들의 분포를 가지면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즉,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반복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된 기호(여기서는 단어)는 이미 표현된 순간에 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며 어떤 대상을 지칭하거나 표현하는 주체의 의식이나 실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된 사건은 그대로 하나의 실체이며 차이의 강도이다.

15) 따라서 들뢰즈에게 시뮬라크르는 가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잠재태가 시간속에서 현실속의 현실태로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차이 자체를 의미한다.

16) 들뢰즈에게 표현과 내용은 선후관계나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전제적 관계에 의하여 구성되는, 동시적이면서 변환 가능한 의미이다.

성되는 것이다.

공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열화, 즉 특이점들의 배치는 현실적인 생성이고, 따라서 작동하도록 하는 원동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들뢰즈가 도입하고 있는 원동력은 욕망이다. 욕망의 흐름에 따라서 특이점들은 배치되어 진다. 이에 따라 계열화 된 개체적 의미들이 생산되어지고 표현된다.

들뢰즈는 이러한 다층적 결정론의 세계, 중심을 상실한 세계의 이미지로 리좀(rhizome)구조를 은유적으로 도입한다. 리좀은 나무의 결뿌리를 일컫는 단어로 하나의 통일성으로서의 구근이 존재하지만 무한히 분열하며 생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좀구조는 식물뿐만 아니라 두더지 굴과 같은 구조에서도 발견되는데 다양한 경로로 구축된 두더지 굴은 번식, 식량의 배분통로, 이동과 은신의 통로등으로 특징 지워 진다. 이러한 리좀 구조는 규정적인 하나의 의미, 방법론 등을 지양함으로써 쉽게 변화하고 비순차적으로 연결되어진 개방된 환경과 불확실한 세계에서 삶을 인정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적합한 사고체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리좀구조의 특성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리좀구조내에서의 어떤 점이든 다른 점과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연결은 순차적 연결이 아닌 불규칙적이고 비선형적인 연결이다. 둘째는 다양성과 수평성이다. 리좀구조안에서는 어떤 위계적 체계도 없으며 각 절점들은 수평적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어디서 출발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들뢰즈의 저서인 '천개의 고원'에서도 보여 지는데 이 저작은 그가 서언에서 언급한대로 결론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부분을 먼저 읽든지 상관 없다.

또 다른 예는 인터넷상의 문서에서 보이는데 인터넷상의 문서들은 순차적이거나 위계적이지 않다. 하이퍼텍스트(hypertext)들 간의 이음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이음의 방식은 밑줄 그어진 푸른색 글자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새로운 화면이 뜨는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외견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음과 경로들은 동일하지 않다. 셋째는 리좀구조상의 다양체들은 주

체도 객체도 갖지 않는다. 단지 차이로서 존재할 뿐이다. 넷째, 하나의 접속점을 지나는 다양한 선들을 허용한다. 이러한 선들은 각 접속점에서 계열화에 따른 의미의 영토화와 반대로 탈영토화의 선들이 동시에 관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인터넷에 있어서 하나의 문서(hypertext)는 각 검색경로에 따라서 다른 페이지들과 한편으로는 연결되면서(영토화) 다른 한편으로는 단절(탈영토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리좀 구조의 특성들은 전체나 공통의 이해를 위한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으며 단지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진 존재의 한 상태나, 수많은 차원들로 이루어진 영역 속에 있는 한 차원을 보여 줄 뿐이다.¹⁸⁾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복제하거나 다른 하나의 기의(signifie)내지는 의미가 되지 않는다. 단지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3. 현대건축 현상의 존재론적 해석

3-1. 20세기말 새로운 건축적 시도의 배경

1960년대 중반 모더니즘 건축의 단조로움과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건축에서 의미에 관한 논의 전개는 그 특성 상 의미전달의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건축물을 기호로 보는 경우 언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미화 내지는 의미작용의 문제로 귀착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즘건축이 도입했던 기호학내지 의미론적 패러다임(paradigm)은 건축과 사회공공과의 의사소통의 단절에서부터 근대건축에 대한 실패논의와 건축의 위기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각성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과 공공과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된다면 언어체계가 관여할 여지가 있으며, 벤추리는 '형태 언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체계의 건축으로의 차용을 인정하고 있다. 공공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그가 도입한 건축적 전략은 '장식된 쉼터(shelter)'였다. 기능적으로 근대건축이 해결한 성과는 인정하면서 소외되었던 요소들, 즉 장식,

17) Mark Poster, *The Mode of Information*,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1990, p.6

18) Kathleen Burnett, 'Toward a Theory of Hypertextual Design', <http://ebbs.english.vt.edu/hthl2/pards/wise/burnett.html> 참조

은유, 역사, 상징 등의 형상적 개념들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람푸그나니가 건축에서 의미전달을 제1기능과 제2기능으로 구분하여 제1기능은 기능적인 면으로 제2기능은 감성적인 면으로 정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제1기능이 충족되고 난 후, 제2기능으로서 감성적인 면의 의사소통 내지 의미전달을 위하여 장식 등의 형상적 개념들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그의 저서 'Learning from Las Vegas'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이 책의 결론부분 마지막에서 "구조에 장식 하는 것은 어쨌든 좋다. 그러나 장식을 구조로서 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류진의 기술을 인용하고 있다.¹⁹⁾

여기서 벤츄리가 의도한 대로 감성적인 면에서 건축물과 공간의 의사소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건축물이라는 의미전달체 내지 기호가 발신하고 있는 의미를 의미수신자 또는 피어스 삼부모형에서의 기호해석체가 건축가의 의도대로 해독하려면 건축물과 기호해석체 사이에 공통의 언어체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둘째는 의미전달체인 기표(건축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양자에서 동일한 의미작용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가에 의해서 창작된 형태로서 또는 공간으로서의 건축물은 언어적 창작물과 같이 서사적 형식(narrative form)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각적 실체로서의 3차원적 물체이다. 따라서 언어적 창작물과 같이 반드시 형식적으로 해석되는 기호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의미수신자 내지 기호해석체를 디노테이션(denotation)²⁰⁾의 해독과정이 없이 곧바로 직관적인 시각적 코드(code) 해석으로 돌입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의미작용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커노테이션(connotation)²¹⁾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언어적 창작물은 기표와 기의 간에 어느 정도의 예정적 결합에 의하여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일정한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 반하여 건축은 그러한 예정적 결합에 의한 기호해독의 가능성을 기대

하기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벤츄리(Venturi)가 설계한 '길드하우스(Guild House)' 옥상에 설치된 텔레비전 안테나(television antenna)를 '노인의 상징'으로, 팔라조(Palazzo)를 모방한 형태가 '전통적 형상의 부활이자 고전주의적 상징성의 회복'으로 해독되려면 그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시각적 코드(code)들이 의미해석체로 하여금 동일한 의미작용을 유도하도록 하는 기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건축에서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표와 기의 간에 어느 정도의 예정적 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문화권에 있는 사회구성원간에서 의미해독이 일반적인 이해의 차원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언어내지는 형상을 상정할 수 있는데,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고대 로마 이래로 고전주의적 건축물들로 이루어진 도시이미지를 보존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유럽 고전주의 건축의 형태요소들은 일정한 형식으로 서구문화권에서 공공의 기억에 의존하여 유추되는 이미지로 존재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합의적인 수준으로 의미의 유도가 가능한 의미작용의 기체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알도 로시(Aldo Rossi)는 1966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L'architettura della Citta'²³⁾를 통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공공의 기억에 의존하는 형태언어체계로 작용하는 유형학적 원형들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도시의 연속성 개념을 주장했다. 로시(Rossi)의 접근방법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언어체계로 적용 가능한 형태학적 구조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역사적 건물 유형에 의해 유추 가능한, 기억에 의존하는 형태요소 또는 유형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형학적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건축에서 가지는 의미는 건축이 자율적인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주의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기술법칙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독자적인 형태구조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면 건축이 자율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고유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구조는 공공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

19) Robert Venturi, Denise Scott Brown, Steven Izenour, Learning From Las Vegas, Revised edition, The MIT Press, Cambridge, pp. 162-163, 1977

20) 디노테이션(denotation): 詩語의 外延의 意味

21) 커노테이션(connotation): '장식언어체' 또는 '이차언어체'라고도 하며 '內包的 意味'로 해석된다.

22) 변계성,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 있어서 의미론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5권2호 참조.

23) Rossi A., L'architettura della Citta, Padova, 1966

이기도 하다. 문제는 세계의 여러 도시와 지역들이 유형학적 접근방법이 의존하고 있는

즉, 원형이 되는 유럽의 특정도시들처럼²⁴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건축행위는 서구문화권만의 행위가 아니며, 고전주의적 형상은 마치 천문학에서 이야기되는 죽은 별의 형상과도 같이 우리 시대의 감성적 요소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건축의 자율적인 패러다임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노력했던 또 다른 사람은 찰스 쟁스였다. 그의 'evolutionary trees'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건축사(建築史)에서의 주요 경향들을 여섯 가지 기원(起源)²⁴들로부터 출발시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기원적 개념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떤 형태로 진화되고 변형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²⁵

이러한 구조주의(Structuralism)적 접근은 그의 저서 'Architecture Today'²⁶에서도 보여 지는데 즉, '레이크모던'건축과 '포스트모던'건축으로 계열을 구분하여 계통도로 분류하고 있다. 쟁스의 이러한 접근이 가지는 의의는 각 건축물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형상적 차이를 분석하고 건축 고유의 의미론적 체계를 탐구함으로써 자율적인 건축학을 구축하려 시도했으며 각 계열 상호간의 영향과 개별적 특성들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접근은 각 건축물이 발신하고 있는 의미들을 그가 만든 일의적 연대표 안에서 규정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방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건축에 있어서의 의미론적 접근은 존재론적 입장에서 볼 때, 플라톤적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원형을 상정하고 건축적 형상의 근원을 이 원형에 둠으로 인하여 양식적 건축을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건축행위에 있어서 재현적(再現的) 사고를 유발시키고 결국, 새로운 생성은 정지

된 채, 콜라주(collage)적 반복만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비록 포스트모더니즘이 '은유적 장식'이라는 아름다운 형태를 창조했다라도 그러한 형상들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도그마(dogma)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상태는 창조를 위한 원동력의 지속적 소진을 가져왔으며 들뢰즈적 관점에서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가 가지는 운명 즉, 완결된 존재이므로 새로운 생성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것처럼 사유되어 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모나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동력적이지 않으며, 자기 충족적이고 정착하는 개념인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너무나 규정적이다. 규정적이라는 것은 창조적 분야와 작업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개념이다. 우주는 결코 규정적이지 않다.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성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며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는 운동과 변화가 충만한 역동적 상황이며 이러한 역동적 세계는 그 대로 중심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면서 또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장(場)인 것이다.

건축에서 구조주의에 기반 하는 언어학적 접근이 한계와 오류를 노출하는 가운데 자크 데리다의 텍스트들을 건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1988년 마크 위글리를 코디네이터로 열렸던 해체주의건축전과 영국 테이트 갤러리에서의 심포지움을 계기로 건축에서의 새로운 전위적 시도로서 인식되어 급격하게 확산되게 된다.

본래, 데리다 텍스트에 있어서 탈구조주의적 접근은 구조주의가 대립구조적 구분을 통하여 다양한 지시가능성을 배제하고 제한하여 의미를 축적하고 지배력내지는 헤게모니의 확장을 초래하는 부조리를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교차대구법적 해체를 통하여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즉, 기표와 기의간의 확정적 지시관계를 부정하고 모든 기호와 그것들의 재현능력을 불신함으로써 부유하는 기호로서의 텍스트 읽기를 시도한다. 텍스트의 의미는 확정적으로 의미화 될 수 없으며,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읽는 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24) 쟁스가 도입한 여섯가지 기원들은 'logical', 'idealist', 'self-conscious', 'intuitive', 'activist', 'unself-conscious' 등이다.

25) Charles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2nd Rei edition, Penguin USA, 1987 참조

26) Charles Jencks, Architecture Today, Abrams NY, 1982

맥락에서 모든 텍스트의 해석은 전적으로 텍스트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건축에서 데리다의 텍스트 해석을 통한 탈구조주의적 접근은 근원적 사유를 결핍한 채, 건축의 구조나 형태, 위계 등에 있어서 탈중심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전통적 건축 형식의 맹목적 해체를 의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고, 사회 속에서 건축이 가지는 존재구도를 무시하고 건축물의 형태나 기능적 프로그램, 구조 등을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변형시키는 또 다른 플라주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은유적 표현에 대한 오역(誤譯)으로 인한 재현(再現)적 형태들도 등장하게 된다.

건축에서의 이러한 접근은 데리다가 그의 텍스트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던 의도와 다르게 형태적으로 일정한 특성의 추출이 가능한 스타일(style)이 하나의 주도적 경향으로 부각되고 또다시 총체성으로 수렴되는 상황으로 유도되어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건축에서의 해체가 본원적 사유를 결핍함으로써 데리다의 텍스트들이 가지는 진정한 의도와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데리다는 언어(言語)나 담론(談論)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언어적(非言語的) 영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데리다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예술행위로서의 건축행위 즉, 언어체계의 잉여물로 남아 있는 그래서 어떠한 텍스트로부터도 자유로운 건축작품의 비언어성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로서의 '해체'와 궁극적이고 절대적으로 '비은폐'된 세계를 건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갈망했는지도 모른다. 니체적 관점에서 진정한 형식은 자신의 현존성속에 있는 존재자 자체이기 때문이다.

3-2. 20세기말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더니즘건축에 있어서 형상적 요소의 도입으로 시도된 플라주(collage)적 접근방법의 한계, 시대적 반영으로서의 건축에 관한 실패 논의 및 해체주의건축이 표출한 공허함과 형태적 도그마(dogma)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인상은 결국 건축

행위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들에 대한 각성과 설득력 부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20세기말부터 건축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건축적 시도에 대한 열망과 함께 보다 활력 있고, 설득력 있으며 창조적 생명력을 가진 건축적 패러다임(paradigm)을 탐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론적 접근과 건축적 방법론의 구축을 통하여 실제의 건축행위를 보여준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제프리 키피니스(Jeffrey Kipnis), 그렉 린(Greg Lynn) 그리고 요코하마 항만터미널 현상설계에 당선된 FOA(Foreign Office Architects) 등의 작업이 두드러졌다.²⁷⁾

이들의 작업은 단지 다원론적 접근이나 새로운 형태의 모색을 위한 시도로 비쳐지던 20세기말의 다양한 건축적 접근에서 일정한 특이성을 보이는 하나의 계열을 구성하면서 신선한 충격과 함께 보다 심층적인 측면에서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들이 보여준 건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형태적인 측면에 시선을 집중하여 그 형태도출의 기술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나 아이젠만이 '랩스톡 파크 매스터 플랜(Rebstock Park master plan)'에 관한 자신의 기술에서 '폴드(fold)'의 개념을 언급함으로써 들뢰즈 사유체계의 영향을 직설적으로 표현²⁸⁾한 것과 관련하여 단편적 들뢰즈 이해에 기반을 둔 용어들이 그 심층적 이해를 결여한 채, 이론적 해석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건축적 시도는 단지 형태적 다양성을 모색하거나 전통적 건축방법론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복합화 되고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 나아가 예술로서의 건축이 그 표현에 있어서 가지는

27)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건축에 있어서 '20세기말 아방가르드'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특정 작가나 작품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범주로 분류하여 다른 것을 지시하는 가능성을 규제하고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일정한 특이성을 보이는 하나의 계열을 지칭하는 의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8) Peter Eisenman, Re-Working Eisenman, John Wiley & Sons 1993, pp.58-61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사유의 결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3. 생성적 건축

새로운 건축적 시도에 있어서 20세기말 아방가르드들이 보여준 접근방법들은 대체로 건축결정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건축행위의 환경과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특이성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두드러진 측면은 불확정적 개념의 건축화와 역으로 건축의 유연한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유동적인 사유를 요구하며 변화의 수용과 새로운 의미의 지속적인 생성을 의도하는 생성적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3-3-1. 공간계열

3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구조는 규정되거나 결정된 것이 아니다. 구조는 결과물에서 그 근원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원인과 결과 간에 인과적 필연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의 효과나 의미는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표현된 결과로서의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일 뿐이며 결국, 의미부여의 주체와 방식이 문제로 대두된다. 들뢰즈는 이와 관련하여 계열을 도입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미는 계열 안에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열은 고려된 영역에 따라 변화 가능한 방향으로 조직화 된다. 따라서 유동적이다. 다만 그 출발점을 전개체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우리의 초월론적 내재의 장에 두고 있다는 것만이 동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 만한 건축가로 제프리 키프니스(Jeffrey Kipnis)가 있다.

1993년 출간된 'Folding in Architecture' 안에 게재되어 있는 에세이(essay)를 통하여 그는 포스트모더니즘건축과 해체주의건축이 도입했던 반복적이고 조합적인 플라주 기법의 건축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건축의 생성을 위한 힘을 주장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건축과 해체주의건축이 도입했던 고정된 수의 이질적 구성요소를 조각내어 다시 짜 맞추는 건축에 있어서의 플라주 기법은 생소하게 하기 내지는 제한된 목록 안에서 시각적으로 새롭게 하기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것이

지배적이고 정형(定型)적인 작업이 되면서 설득력을 상실한 채 도그마로 빠져들었고, 이는 그들이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던 근대건축의 실패논의에서 부각된 핵심적 상황들을 답습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호학적 의미론으로 설명되는 건축에서의 플라주 방법론은 변화, 우연성 등의 새로운 조합들을 발생시키지만 근본적으로 재현에 기반을 두는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총체성으로 귀착되는 오류를 노출시켰다는 것이다.²⁹⁾ 키프니스가 이러한 비판 후에 주장하는 것은 건축의 역할이다.

즉, 우리가 건축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것은 단지, 이론적 완성이나 형태적 표현의 완결성이 아니라 건축이 사회 속에서 가지는 현실적 능력을 통한 문화적 의미의 전달과 시대적 요구 및 정신적 산물로서의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건축의 능력은 실제적으로 건축을 형성하는 힘들의 관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건축을 형성하는 힘들에 주목하는데, 도시와 환경 등 보다 큰 스케일(scale)에서의 시스템과 관계들,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내재적 인식, 자연 자체에 대한 통찰 등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원칙의 구축 및 새로운 형태의 실험과 추진을 주장한다.

키프니스가 설계한 중국 남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하이난의 수도 하이코우 내에 있는 창리우집단지역 종합개발계획안을 살펴보면, 그의 새로운 시도를 위한 건축적 개념들을 알 수 있다.

키프니스는 이 계획안에서 일련의 설정된 그리드(grid)와 발주처가 요청한 타원형 도로시스템을 기본적인 구조로 수용하는 하나의 층(layer)과 전체 지역을 각 기능별건물들과 주변환경 그리고 공공장소가 융합되도록 평면과 단면 양측에서 작용하는 보다 복잡한 다른 층(layer)들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즉, 시민문화회관, 쇼핑센터, 필로티(pilotis), 일반건물 들로 구성된 네 가지 건물들의 층과 그늘진 휴식공간, 지붕이 덮힌 도로, 지붕이 덮힌 시

29) Jeffrey Kipnis, 'Toward a New Architecture' Folding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1993, 참조

장, 해양쇼 및 그 밖의 이벤트들을 위한 부지, 산책로, 공공장소 등으로 이루어진 하드랜즈케이프(Hard Landscape)의 층 및 공원, 녹지, 잔디밭, 수목들로 이루어지는 조경적 차원의 소프트랜즈케이프(Soft Landscape)의 층 등 세 가지의 기본적인 층들로 조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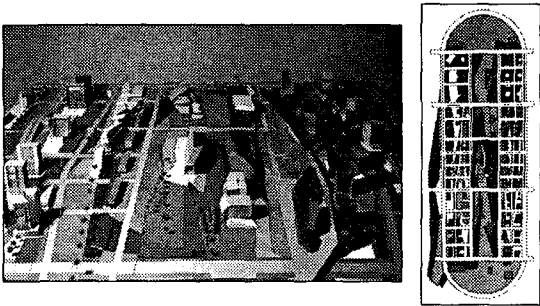


그림1. 창리우 개발계획안

이러한 접근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건축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켜 큰 스케일(scale)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이질적인 요소들의 집목을 통하여 건축이 구축한 공간과 사용자들 사이에서 촉발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불확정적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수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는 건축에 있어서 확정적 내지는 규정적 프로그램을 통한 건축결정론적 사고가 실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도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유도하는 것을 보아왔다.

존재론적 입장에서 이 세계 안에서의 모든 사건은 정확하게 모든 존재가 시간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한 산출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과거에 의해 인과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어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과적 필연성을 인정하는 라이프니츠적 사고는 3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들뢰즈에게 있어서 우연성과 필연성이 공존하는 생성적 사유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창리우 프로젝트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법론 즉, 세 가지의 기본적 층들을 조직하는 것은 들뢰즈적 관점에서 부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힘들과 이러한 힘들의 관계에 대한 통찰에 근거하는 세 가지 공간계열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태에 의하여 촉발되는 각 공간계열간의 영도화와 탈

영도화의 과정을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과 의미들의 생성을 수용하고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키프니스가 도입한 세 개의 층들은 전통적으로 건축이 도입했었던 공간의 기능에 대한 zoning 기법을 벗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건물들의 층, 공공장소들의 층, 조경공간의 층 등은 이미 세 개의 공간기능들에 대한 결정론적 의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 원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인위적으로 설정된 계열이 생성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즉, 들뢰즈가 도입하고 있는 계열의 개념은 고려된 영역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직화되는 존재이며 상호간에 관련 없이 분열적으로 분화되어 가는 존재다. 반면에 키프니스가 도입하고 있는 계열은 유동적이고 분열적으로 조직되고 분화되도록 의도되었다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결정된 큰 스케일에서의 공간계열이 세부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규정적으로 지시하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프로젝트에서 형태적으로는 철저히 비재현적이고 비지시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그가 비판했던 포스트모더니즘건축 및 해체주의건축의 풀라주적 형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도면과 모델을 통하여 보이는 각 건물들이나 지구계획의 형태는 획일적 형식 없이 이질적 형태들을 도입하여 구성하였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형태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그가 주장했던 새로운 형태의 실험 및 추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3-3-2. 탈형식화와 잠재성

건축에서 상징계에 기반을 둔 언어학적 접근은 재현의 한계성과 그로인한 존재의 결여를 가져왔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도입된 건축에서의 탈구조주의적 접근도 자의적 접근으로 인하여 건축의 자율성과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존재결여의 상황에서 건축을 공허함에서 끌어내는 것은 건축의 존재에 대한 사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상징계에 기반을

둔 재현적 의미에서의 건축을 벗어나는 길은 원형에 대한 포기를 통하여 실제계를 탐구하는 것이며, 이는 물리적 차원에서의 사유를 포기하고 보다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존재론적 사유를 요구한다. 또한 맹목적인 전도(顛倒)의 공허함에서 벗어나 건축이라는 형식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탈형식적 사유가 요구되는 것이다.

주어진 형식을 변형시키거나 형식자체를 벗어나기 위한 건축적 시도로서 살펴 볼만한 설계안이 피터 아이젠만의 '시티 오브 컬처 오브 갈리시아(City of Culture of Galicia)'³⁰다.

전통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물리적 형상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하나의 제약적이고 필연적인 규정 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더구나 건물과 대지 상호간에 '형상과 배경의 원리'에 의하여 건물은 하나의 오브제(object)로, 배경으로서의 대지 및 주변환경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인식되어 졌다. 이를 가로지르기 위하여 아이젠만은 이 설계안에서 맥락의 개념을 확장시켜 적용한다. 어떤 역사적 맥락이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기법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대지의 지형학적 위치가 가지는 이야기와 장소의 공간적 요소들로부터 발굴된 흔적들을 건축디자인의 비동기적 맥락으로 도입하고 이의 위상학적 변형을 통하여 생성된 형태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건물과 대지에 대한 형식적 구분이나 형태적으로 규정된 맥락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이야기 등을 탐구하고 이러한 잠재태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현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건축행위를 다루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이젠만은 이러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설계안에서 건물들의 공간적 맥락, 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층적과 흔적들을 이용하는데, 그가 도입하고 있는 방법론은 소위 '블러링(Blurring)'³⁰이다.

즉, 대지의 역사적 맥락들로부터 추출된 부지 근처의 오래된 종교건물, 이 도시가 가지고 있던 직교 그리드(grid), 부지 자체의 지형 등 서로 다

른 흔적들과 요소들을 위상학적 방법에 의하여 더욱 세분화하여 변형시킨다. 이 후 각각의 변형된 그리드에 맞추어 공간들의 배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아이젠만의 시도는 들뢰즈(Deleuze)적 관점에서 재현(representation)에 기반을 둔 접근들은 잠재태가 가지고 있는 질적 다양성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현재와 공존하는 실재로서의 과거 및 미래를 향하여 계속 생성 중에 있는 현재를 동시에 고려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속해서 생성 중에 있는 흐름의 한 시점에서 잠재 또는 접혀있던 차이를 계열화 한 지면 및 공간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로 드러내어 주는 행위로서의 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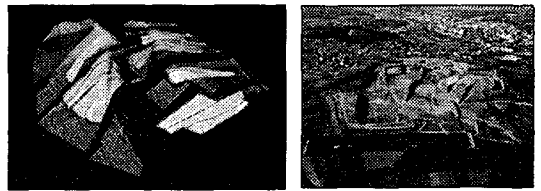


그림2. 시티 오브 컬처 오브 갈리시아
(City of Culture of Galicia)

이와 유사한 접근방법을 보이는 아이젠만의 또 다른 설계안 '랩스톡파크 매스터 플랜'은 건물들의 공간적 맥락, 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층적과 흔적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분명한 물리적 기법을 보여 준다. 즉, 그가 이 프로젝트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모듈(module)이다. 즉, 대지의 역사적 맥락들로부터 추출된 2개의 서로 다른 모듈로 이루어진 그리드(grid)를 위치시키고 이 두개의 그리드를 변형시킨다. 이를 다시 위상학적 방법에 의하여 더욱 세분화시켜 변형시킨다. 이후 각각의 그리드에 맞추어 배열한 매스들을 다시 큰 그리드와 작은 그리드에 따라서 각각 변형된 배치를 실행한다.

아이젠만은 랩스톡파크 매스터 플랜에 관한 자신의 언급에서 '폴드(fold)의 개념에 있어서 형태는 연속적이면서 동시에 수직과 수평 상호간에, 형상과 배경 상호간에 새로운 관계의 접속을 보여

30) 블러링(blurring): 흐리게 하기

주고 있다. (중략) 들뢰즈에게 새로운 목표는 더 이상 공간의 구성에 있지 않다. 그것보다는 연속적인 질료의 변이를 내포하고 있는 일시적인 변조에 있다.'고 함으로써 들뢰즈 사유체계의 영향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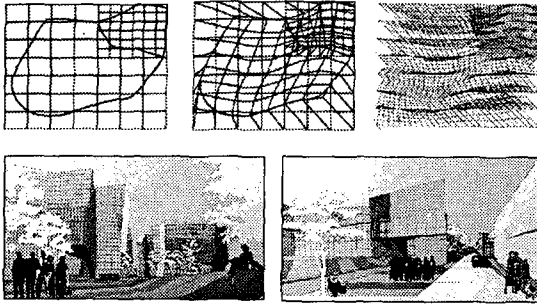


그림3. 렉스톡파크 매스터 플랜 (Rebstockpark master plan)의 개념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잠재성에 대한 아이젠만의 이해가 여전히 형태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들뢰즈에게 있어서 잠재성은 아이젠만이 해석한 것과 같은 자의적 구도가 아니다. 들뢰즈가 잠재성을 이야기 했을 때, 잠재성이 위치하는 차원은 잠재적 공존의 개념을 가지는 초월론적 장이다. 이러한 초월론적 장은 전개체적인 장을 의미하며 의미의 주체도 기호도 사물도 아니면서, 물리적 존재도 정신적 존재도 아닌 중성적인 것이다. 이 말이 성립할 수 있는가. 구태여 들뢰즈의 초월론적 장이 의도하는 바를 해석한다면 플라톤에 있어서의 이데아, 헤겔에 있어서의 절대정신, 칸트에 있어서 물자체, 프로이트에 있어서의 무의식, 스피노자에 있어서의 자연을 대체하는 개념이며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주의 일부로서의 실재, 통시적(通時的)인 시간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사유의 이미지들이다.

즉, 잠재적 공존의 장에 있던 요소들은 다양한 공명(resonance)에 따라서 시간 속에서 그 효과를 드러낸다. 초월론적 장에서 현실 속으로 분열된 개체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운동으로서의 무한한 생성의 일부이면서 즉자적인 절대적 내재의 구도

내지는 초월적 내재의 구도 속에서 공존하던 잠재성이 우연한 촉발에 의하여 현실화된 사건의 결과이다. 이러한 사건은 잠재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의 이행에서 질료의 자기변형 과정의 효과이자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실적 형태에서 다른 현실적 형태로의 이행이 아니다.

반면에 아이젠만이 해석한 잠재성이 위치하는 차원은 여전히 물리적이고 재현적 차원에 존재하면서 들뢰즈가 이야기한 초월적 내재의 구도를 읽지 못하고 있다.

3-3-3. 시뮬라크르(simulacre)

그렇다면 들뢰즈 사유체계에 기반 한 초월론적 내재의 구도 내지는 초월론적 장에 있던 잠재성의 현출(現出) 또는 펼쳐짐으로서의 사건으로 건축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국면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면 건축가 그렉 린(Greg Lynn)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들뢰즈가 이야기 했던 초월론적 내재의 장은 어떠한 모델(model)도 가지지 않는다. 표현과 내용의 구도는 상호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탈코드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즉, 하나의 비정형적이고 단일한 공통감각의 영역내지는 생성의 영역에서 접혀져 있던 '차이'의 펼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도를 수반하는 사건이면서 잠재성의 영역에서 현실화로의 이행이다. 이러한 경우, 현실 속으로 나타난 실체나 표현된 기호는 이미 표현된 순간에 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며 어떤 대상을 지시하거나, 표현하는 주체의 의식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화 된 감각적 존재로서의 실재, 또는 차이를 가진 사건으로서의 이미지 그 자체다. 이것이 들뢰즈에게는 시뮬라크르(simulacre)³²⁾다.

이러한 시뮬라크르(simulacre)로서의 기호는 지시적 의미소통의 차원을 넘어서 감각적이고 작동하는 존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 한

32) 들뢰즈에게 있어서의 '시뮬라크르(simulacre)'는 보들리야르(Jean Baudrillard)가 언급한 바 있는 '실재를 대체한 이미지'라는 의미보다는 현실화 된 감각적 존재로서의 실재 내지는 차이를 가진 사건으로서의 이미지 그 자체를 지칭한다. (Gilles Deleuze, 'Plato and the Simulacrum', October, no27, pp.52-53 참조)

31) Peter Eisenman, Re:working Eisenman, John Wiley & Sons, 1993, pp.58-61

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시적 의미소통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부여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영원의 시간(Aion)속에서 무수히 많은 관념과 가상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초월론적 구도에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실재 그 자체이면서 변환 가능한 존재로서 자유롭게 영도화와 탈영도화 되는 계열이다.

건축에서는 표현된 실체로서의 건축물이 그 자체로 작동하는 존재자로서 감각적 존재가 된다. 이러한 차원은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세계를 드러내는 행위의 한 형식으로서 건축을 말하는 것이다. 즉, 표현된 건축물은 모델이 없는 실체의 생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건축가의 의식적 표현이나 어떤 규정적 의미의 지시가 아닌, 초월적 내재의 구도에서 접혀져 있던 차이의 펼침으로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시뮬라크르로서의 실체이다. 철저하게 비재현적으로 표현된 건축적 형태는 그대로 들뢰즈의 '표현과 내용'의 구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랙 린이 이러한 차원의 건축적 접근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태생성 알고리즘(algorithm)'이다. 그는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완결된 형태의 디자인을 완성하기까지 철저하게 컴퓨터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도출된 형태는 계열들의 관계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로 그는 이를 'Animate Form'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움직이는 형태'로 오역(誤譯)되기 쉬우나 그가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앞서 언급한 들뢰즈적 사유에 기반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더 이상 이상형이나 원형, 또는 규정적 의미로서의 형상을 찾거나 모색할 필요가 없이 예술작품처럼 스스로 작동하는 감각존재자로서의 건축적 형태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가 방법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형태생성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랙탈(Fractal)기하학적 방법들도 근본적으로 들뢰즈적 관점에서의 비재현적 또는 모델이 없이 단지 '차이의 강도'에 의해서 펼쳐지는 시뮬라크르(simulacre)서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의 한인장로교회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그의 이론이 실제적으로 건물로 구축되는데 있어서는 격차를 노출하고 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블럽(blob)³³⁾을 사용한 개념도 속의 형태들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하나의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 한 결과물로서의 건축물은 그의 이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의 이론적 개념을 건축화 하는 부분에서 격차를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이 조각이나 설치미술이라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건축물은 형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공간의 확보를 전제로 존재하며, 건축에서의 이러한 측면들은 건축행위가 가지고 있는 순수 예술행위로서의 내재적 한계를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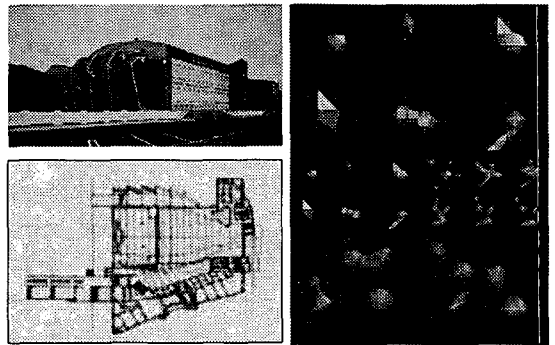


그림4. 뉴욕한인장로교회 및 블럽 개념도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의 내재적 한계³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메타언어적 측면에서 허구의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내부공간과 외부형태의 분리라는 이분법적 접근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도입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그의 이론이 가지는 의도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33) blob (binary large object) : 컴퓨터 그래픽에서 블럽(blob)은 재미있는 형태를 가지는 시각적 객체로서 유연하고 애니메이션(animation)을 따르는 픽셀(pixel: 素)의 덩어리를 지칭한다.

34) 건축설계에 있어서 순수 예술행위로서의 건축디자인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건축주나 사용자의 기능적 요구, 법규제, 경제성과 예산, 사회환경, 기술수준, 풍토와 문화적 조건 등이며 이들은 순수 예술행위로서의 건축행위에 내재적 한계로 작용한다.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이후의 시도들에서 프랙탈(fractal) 기하학적 기법과 스위프(sweep)기법³⁵⁾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보다 정교한 잠재성의 형태 표현 기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시간을 두고 관측할 필요성이 있다.

3-3-4. 사건과 리좀(rhizome)

건축에서 들뢰즈적 '표현과 내용의 구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사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3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어떤 특이성들의 집합은 하나의 계열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의 사실에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러한 계열 내에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된 사실로서의 사건은 이미 그 표현에 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며, 사건은 각기 다른 계열들에 의해서 계열 내에서의 의미로 생성된 것이다. 여기서 각 계열들은 특이성들의 장이며 하나의 계열은 다른 계열과 연결해 있는 지점까지 확장되어 나간다. 이러한 이행은 결국 계열 간에서 양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특이점내지는 경계선에 다다르고, 이 특이점은 사실이나 실체 자체로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채 표면적 상태(표면효과)의 변화를 초래하는 지점이다.

즉, 동일한 하나의 사실이 계열화를 통하여 각기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어떤 것을 계열로 끌어들이어 자기화하는 영도화와 거기서 벗어나는 탈영도화를 의도하는데 영도화와 탈영도화는 항상 선택적이고 유동적이므로 계열화하는 한에 있어서만 규정적이 된다. 한편, 이와 동시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과 가치창조의 생성과정 및 흐름(flux)속에서 사유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시간 개념을 넘어서서 과거와 미래의 양방향으로 생성하는 영원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아이온(Aion)의 시간을 가진 초월론적 내재의 場'이 들뢰즈가 의도하는 생성의 영역이며 유목적 사유의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대안이 FOA³⁶⁾에 의해 설계된 '요코하마 항만 터미널 현

상설계' 당선안이다.

FOA가 이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접근방법은 하나의 바닥판을 접거나 변형시켜 여러 이질적 공간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인공적 지면에 배치시키는 방법이다. 인습적 건축물의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러한 구조는 총 4개의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바닥판은 60cm마다 단면이 다른 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판들은 접히고 분절되기도 하고 물결치듯이 굽어지기도 하면서 결절 없이 하나의 면으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각 공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구획시키지 않고 애매하게 보여 지는 영역성에 의하여 조율되도록 되어 있다. 바닥판과 생성된 공간은 지시적인 의미나 형식을 의도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규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공간과 사용자들 간의 관계로부터 촉발되는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수용하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또다시 다양하고 무한한 차이를 갖는 사건들을 비순차적이고 분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들뢰즈적 맥락에서 이 건축물은 시간에 따라 여러 제반 환경에 유목적으로 작동하는 감각적 기계이면서 건축물 스스로도 잠재태로부터 현실화 된 하나의 사건으로서 존재한다.

한편, 형태적으로 바닥판은 하나로 연결되어 전체나 공통의 이해를 위한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단지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진 존재의 한 상태나, 수많은 차원들로 이루어진 영역 속에 있는 한 차원을 보여주는 리좀(rhizome) 구조의 특성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적 접근은 위상기하학(topology)과도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위상기하학적으로 평평한 철판은 압착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체, 그릇이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결과물로서의 자동차의 차체나 그릇은 철판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잠재적 차이들 중 하나이면서 공통적으로 평평한 철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의 속성을 건축적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

35) 컴퓨터 그래픽에 있어서 경로를 따라 소스가 이동한 궤적을 형태화 시키는 기법을 지칭한다.

36) FOA : Foreign Office Architects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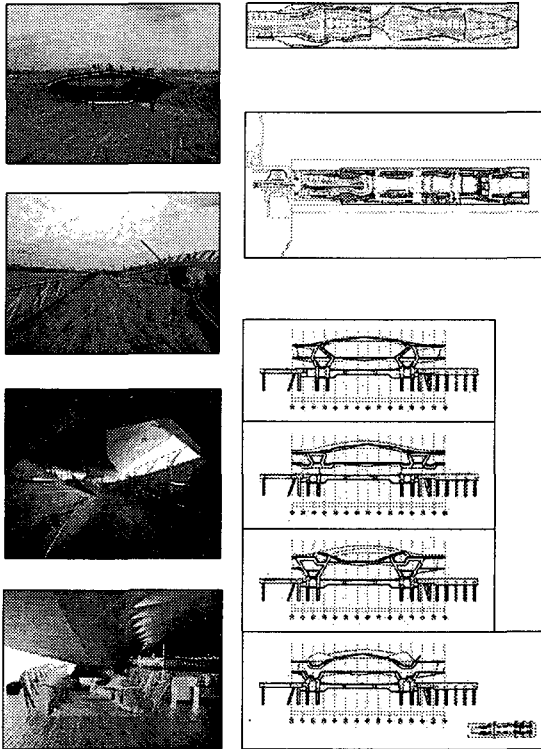


그림5. 요코하마 항만터미널

그러나, 불확정적 프로그램에 의한 공간으로 시도된 각 공간계열간의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기제가 구조물이나 공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즉, 가변성을 가지는 공간이 일련의 계열과의 관계에 따라 애매한 영역성으로 조절되도록 한 의도가 실제로 사용자와 공간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작동하는지 여부와 사용자가 이 건축물의 이미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4. 결론

사회문화적인 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유체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건축적 접근방법과 표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건축현상의 해석과 이론의 정립에 있어서 철학적 사유체계의 차용을 통한 재조명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존재론(ontology)

적 사유체계에 기반을 두고 20세기말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의 건축현상에 대하여 해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20세기말 현대건축에서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는 형태적으로 규범적 단일성이나 재현적 차원을 넘어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의 속성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존재론적 세계의 실재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도입되고 있는 위상기하학적 방법 및 리좀(rhizome)적 구조에 근거하는 형태생성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들뢰즈적 관점에서 이러한 시도들은 표현과 내용의 구도에서의 의미 생성과 사건, 차이, 비선형적인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의 건축적 적용과 표현을 의도함으로써 기능결정론이나 재현적 요소의 파편화 된 형상적 차원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형태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건축고유의 한계요소들을 간과한 채, 개념적 측면에 관심을 지나치게 집중하여 건축형태를 도출하려는 것도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건축결정론적 접근이 가지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확정적 프로그램의 도입 및 이의 작동을 위한 이질적 프로그램들의 연결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질적 프로그램들은 몇 개의 공간계열들로 계열화되고 다시 이러한 공간계열들을 유연하고 밀접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영역성의 측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의도하여 공간과 사용자,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사건들을 수용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그러나 각 공간계열간의 영토화와 탈영토화, 리좀적 구조, 위상기하학적 접근 등의 개념들이 결과물로서의 건축물이나 공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사용자가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건축에서 존재론에 기반 하는 접근이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초월론적 장의 내재를 정의하는 잠재적인 것들과 그것들을 현실화하고 초월적인

어떤 것으로 변형시키는 가능한 형식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 한다'고 들뢰즈가 그의 유고 'L'Immanence: une vie...'에서 밝혔듯이 건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이 세계의 실재를 비은폐 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 가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Folding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no102, 1993
2. Foreign Office Architects, Foreign Office Architects, AAfiles 29, 1995
3. Gilles Deleuze, Difference and Repitition, Paul Platton, New York: Columbia UP, 1994
4. Gilles Deleuze, 'L'Immanence: une vie...', in Philosophie 47, September 1995
5. Gille Deleuze, Pure Immanence: Essays on life, trans. by Anne Boyman, Zone Books, New York, 2001
6. Gilles Deleuze, 'Plato and the Simulacrum', October, no27
7. Jean Baurdrillard, Simulatons, trans. Paul Foss, Pual Platton, Philip Beitchman, Zone Books, New York, 2001
8. Peter Eisenman, Blurred Zone: Investigations of the Interstitial : Eisenman Architects 1988-1998, Monacelli Press, 2003
9. Greg Lynn, Animated Form,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9
10. Charles Jencks, Architecture Today, Abrams NY, 1982
11. Charles Jencks,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2nd Rei edition, Penguin USA, 1987
12. Robert Venturi, Denise Scott Brown, Steven Izenour, Learning From Las Vegas, Revised edition, The MIT Press, Cambridge, 1977
13. Rossi A., L'architettura della Citta, Padova, 1966
14.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15. 이정우, 집힘과 펼쳐짐, 거름출판사, 2000
16. 질 들뢰즈 이정우 옮김,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
17. 질 들뢰즈, 펠릭스 가따리 이정임, 윤정임 역,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5
18. Martin Heidegger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19. 변계성,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 있어서의 미론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5권2호. 2003

Ontological Analysis on the Phenomen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Avant-garde in the End of the 20th Century -

Byun, Gye-sung

(Changwon Colleg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eatures of the avant-garde architecture in the end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the ontology as a metalanguage.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thought of becoming, topology, rhizome thought and the Deleuze's concepts of the fold and the event as ever-changing and evolving at any given time are found in the avant-garde architecture, and the introduction of ontological thought into architectural design encourage hopes for a more natural and existential quality in architecture. However, the avant-garde architecture in the end of the 20th century disclosed the limitation in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ontological thought due to the lack of fully understand on ontology.

In conclusion, the ontological approach in architecture offers a new morphological methodology and a new way of programming considering the existential aspect of space through the bricoleur's means leaving the ontological meaning of architecture itself.

Keywords : contemporary architecture, analysis, ontology, avnat-garde, phenomenon
